

이야기 6 : 아브라함

주제말씀
[창세기 22: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그곳을 떠나 내가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고향을 떠났어요.

조카 롯도 따라 갔어요. 마침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니 그곳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 너에게 하늘의 별만큼 많은 자식들을 주겠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내 사라가 약속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100살이고, 사라는 90살이었어요.

정말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분이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음 해에 사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이삭은 무력무력 자랐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너무 슬프고 속상했지만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모리아산을 향해 갔어요.

두 사람은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높이 들었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해치지 말아라. 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도다!”

그 때, 아브라함은 수풀에 뿔이 걸려 꼼짝도 못하는 숫양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제물이었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답니다.



활동 1.

아래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1)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2) 아브라함의 제사를 위해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주신 곳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3)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말했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시험하고 싶었나요?

● 다음 성경구절을 읽고, 암송해 보세요. (창세기 22: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활동 2.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한 땅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